

연구단편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최 현 자*
Hyuncha Choe

조사연구는 소비자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 소비자학의 영역 중 가계경제영역에서는 특히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의 표본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가계의 경제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의 범위를 단독가구와 농·어가로 확대하고 소득자료의 보고를 근로자 이외의 가구에 대해서도 시행하도록 제언하는 바이다.

Survey is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method in consumer studies. Especially, most researches related to family economic behavior, one area of consumer studies, have been performed using the data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FIES) conducted by National Statistic Bureau recently. To extend the usage of the FIES, it was suggested that one-person household and rural and fisherian household should be included in the sample. Information on the income of the non-wage earners should be reported as well.

I. 서론

조사연구법은 소비자학분야의 연구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험적 연구방법이다. 한국소비자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소비자학연구」의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E-mail: hychoc@snu.ac.kr)

창간호(1990년)부터 1998년까지 게재된 논문 154편중 73.4%인 113편이 연구방법으로 조사연구를 채택하고 있다(김용준, 여정성, 하영원, 1999). 이 중 탐색적 목적이 26편, 기술적 연구가 60편 그리고 인과적 연구가 27편으로 조사연구가 모든 목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연구는 연구결과를 사회행동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홍두승, 2000 p.47) 소비자학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결과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여 수행된 조사의 원자료가 일반인에게 제공되면서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소비자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 그리고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가 그 예로서 특히 소비자학의 여러 연구영역 중 가계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¹⁾ 이 중 도시가계조사는 조사자료의 시계열성과 가계부 기장방식을 통한 자료의 수집으로 다른 자료에 비해 유량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가계경제정보를 제공하므로 서 가계의 소비지출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료의 광범위성과 근접용이성에도 불구하고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는 데는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며 극단적으로는 연구결과를 전면 부정할 수밖에 없

1) 소비자학의 연구주제는 크게 소비이론 및 소비패턴 그리고 가계재무 및 상담을 포함하는 가계경제영역과 소비자행태, 소비자정책, 소비자교육 및 상담을 포함하는 소비자문제영역으로 나뉘거나(송인숙, 1999), 소비자개인행동, 소비자사회적행동, 소비자행동과 마케팅, 가계경제, 소비자보호영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용준, 여정성, 하영원, 1999). 앞의 분류에 의해 지난 20년간 「대한가정학회지」(1980-1999), 「한국가정관리학회지」(1983-1999), 「소비자학연구」(1990-1999) 및 「가족자원경영학회지」(1997-1995)에 발표된 소비자학 관련논문(총 420편)을 분류해 보면 39.7%가 가계경제영역의 연구이다. 후자의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소비자학연구」(1990-1998)에 실린 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논문의 24.0%가 가계경제영역의 연구였다.

는 상황에 적면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도시가계 조사의 원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유용성을 검토 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시가계조사의 문제점과 이용상의 문제점을 밝혀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가계조사의 문제점은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그리고 조사대상으로 나누어 파악하며 이용상의 문제점은 자료분석상의 방법론적인 문제와 자료제공형태의 문제 그리고 자료자체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I. 도시가계조사의 유용성

1. 가계조사의 연혁

도시가계조사는 경제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인 가계의 경제행위에 관한 한 가장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사된 자료이다.

본격적으로 통계청에서 도시가계조사를 시작하게 된 때는 1963년부터이다. 초기에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1975년부터 전비목에 대해 가계부기장방식이 채택되었다. 소비지출비목도 1981년까지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등 5대 비목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나 1982년부터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 피복, 보건, 교육, 교통, 기타 등 9대 비목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를 분리하여 10대 비목으로 확대하였다. 표본은 1969년 다목적표본이 설계되었으나 도시인구의 증가와 행정구역개편에 의한 도시수의 증가로 인해 1972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매 5년마다 표본을 개편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개편은 6차개편으로 1998년에 이루어졌다.

〈표 1〉 도시가계조사의 표본설계

구분	'63~'68	'69~'71	'72~'76	'77~'81	'82~'87	'88~'92	'93~'97	'98~
표본설계	도시가계 조사	다목적 표본설계	1차개편	2차개편	3차개편	4차개편	5차개편	6차개편
조사가구	1,700	1,800	1,800	4,000	4,400	4,500	5,000	5,500
추출율	1/650	1/1000	1/1500	1/524	1/1094	1/1278	1/1283	1/1439

2. 도시가계조사의 용도

도시가계조사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사회·경제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국민소비수준의 변화,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가중치, 국민소득의 추계, 세입자의 주거대책비 산정, 국민주택공급대상 기준마련, 영세민구호사업, 근로자의 임금기준 설정 및 국민 영양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통계청, 2000).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가계의 소비지출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이용 되기도 한다. 다음 〈표 2〉는 지난 1990년부터 2000년 6월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및 「소비자학연구」에 발표된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993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최초로 시도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이용된 것은 1996년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도시가계연보에 제시된 2차자료를 이용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소비지출합수를 추정하거나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하는데 연구가 한정되었다. 그러나 원자료의 이용으로 인해 연구주제가 다양화되었으며 다양한 집단의 소비지출행동을 비교 분석하거나 특정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살펴본 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연구대상이 대부분 도시근로자가계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가계조사내용과 관련한 문제로 다음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자.

〈표 2〉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연구 (1990-2000)

연구자	연도	이용자료	연구내용(연구대상)	출처
배연수	1990	도시간계연보 1970-1987년의 분기별 시계열자료	앵겔곡선의 함수형태 연구(도시노동자 가구)	가정
최은숙	1990	도시간계연보 1963-1983년의 연도별 시계열자료와 농가경제조사 결과 1963-1982년의 연도별 시계열자료	소비지출함수의 추정(도시노동자 가구와 농가)	소비자
김정숙	1992	도시간계연보 1970~1989년의 연도별, 분기별 시계열자료	소비지출분석(근로자가구)	관리
류재술	1992	도시간계연보 1982~1990의	소비함수의 추정(봉급자와 노무자가구의 비교)	소비자
류재술	1992	도시간계연보 1970~1990년의 분기별 시계열자료	소비구조와 성격파악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자
박선미 김영숙	1992	도시간계연보 1963~1986년의 연도별 시계열자료	소비지출구조분석(전도시전가구, 노동자가구, 근로자가구)	관리
양세정	1993	1990년 도시간계조사의 원자료(1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된 가구만을 추출하여 월평균소비지출을 계산하여 사용)	주부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시근로자가구)	소비자
정용선	1993	도시간계연보 1975~1990년의 연도별 시계열자료	소득과 식품비의 변화(도시 근로자)	소비자
김영숙 심미영	1994	도시간계연보 1982~1992년의 연도별 시계열자료	주생활비 지출구조분석(도시 근로자가구)	가정
양세정 강미나	1995	도시간계연보의 1980~1992년의 분기별 시계열자료	자산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도시근로자가구)	소비자
김영숙	1996	도시간계연보의 1985~1994년의 연도별 시계열자료	경조비지출구조(도시근로자가구)	소비자
박광희 배미경	1997	1994년 도시간계조사 원자료	피복비지출(도시근로자가구)	가정
배미경 박광희	1997	1994년 도시간계조사 원자료 (소득이 0보다 큰 가구만 선정)	피복비지출(도시근로자가구)	가정
배미경 박선영 이승신	1997	1994년 도시간계조사 원자료 (총표본(6만여가구) 중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가계 제외).	비상금소유(도시근로자가구)	관리
성영애 양세정	1997	1994년 도시간계조사 원자료 (10% 만 임의로 추출사용)	노인과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비교분석 (도시가구)	가정

〈표 2〉 계속

연구자	연도	이용자료	연구내용(연구대상)	출처
양세정 이윤금	1997	1994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소득자료가 있는 4만여 가구 추출사용)	교육비지출(도시근로자가구)	소비자
주인숙 양세정	1997	1990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된 가구만 추출사용)	소비지출유형과 특성 (도시근로자가구)	가정
박명희 이승신 배미경	1998	1994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	재무관리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도시근로자가구)	가정
박명숙 류정순	1998	도시가계연보 1982~1996년의 연도별 시계열자료와 1996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경조비지출(도시가구)	가정
배미경	1998	1994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	저소득/고소득계층의 소비결정함수(도시근로자)	소비자
양세정	1998	1994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 (소득자료가 있는 근로자가구만 대상으로 함)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근로자가구)	가정
윤정혜· 성영애	1998	1991, 1993, 1995의 도시가계연보 연도별 자료	소비구조비교를 통한 소비표준의 설정 (도시근로자가구)	관리
이윤금	1998	1996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가정의례비지출이 있었던 가구만 추출사용)	가정의례비지출(도시가구)	가정
이희숙	2000	1985~1998년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소득자료가 있으며 매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된 가구만 추출사용)	교통비지출영향요인의 변화(도시근로자)	소비자
최현자	2000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조사 1977~1996년의 연도별 시계열자료와 1996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소득자료가 있으며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된 가구만 추출사용)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 비교 분석(도시 전가구와 농가/도시근로자가구)	관리

주: '가정'은 「대한가정학회지」를, '관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지」를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자학 연구」를 의미함.

Ⅲ. 도시가계조사의 문제점

1. 조사대상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²⁾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통계청, 1993).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2인 이상의 정상적인 가계수지파악이 가능한 가구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독가구와 농가, 어가 등을 제외시키고 있다. 다음 <표 3>은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조사와 미국의 가계조사(Consumer Expenditure Survey) 그리고 일본의 가계조사(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의 조사대상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결과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을 도시가계에만 국한 시킨데 비해 미국과 일본은 도시와 농가를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한국은 단독가구를 제외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단독가구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가계조사의 목적이 국민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사회·경제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도시의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가계조사'가 아니라 모든 가계를 포함하는 '가계조사'여야 한다. 따라서 단독가구와 농·어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사결과를 통해 국민의 생활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가구구조의 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1인 가구의 급증이다. 지난 20년간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1975년에 1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4.2%에 그친 반면 1995년에는 12.7%로 늘어났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5). 특히 1인 가구의 많은 경우가 단독노인가구로 추정되므로 도시가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생활실태의 파악은 생활수준을 과대 평가할 우려가 있다. 1991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기로 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단독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조사방식에서 면접방식을 취하고 있어 가계의 소비행동을 파악하는데는 자료의 정확성이 크

2)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식사하고 잠자고 생활비를 같이 쓰는 모임을 말한다(통계청, 1993).

〈표 3〉 한국, 일본, 미국의 도시가계조사 대상비교

	한 국	일 본	미 국
조사 대상	전국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	일본전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함	도시와 농촌의 소비자단위를 대상으로 조사.
	※ 제외가구 - 농가 - 어가 - 단독가구 -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음식점·여관·하숙업 등을 경영하는 병용주택, 가구원의 구성이 가족을 위주로 하지 않는 혼성된 가구) - 외국인가구 - 가구주가 장기간 부재하는 가구	※ 제외가구 -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위한 집을 이용하는 가구 - 영업으로 하숙을 하지 않더라도 하숙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가구 - 4명 이상의 고용인이 동거하는 가구 - 가구주가 오랜 기간 동안 부재하는 가구	소비자단위란? - 혈연, 결혼, 입양 그 부의 법적 계약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모든 구성원들, 혹은 - 혼자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 하는 사람, 개인집이나 하숙집에서 방만 빌려 사는 사람, 여관이나 호텔에서 장기 투숙 하는 사람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단위 - 두사람 이상이 수입을 모아서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소지출을 하며 사는 사람들. 대학이 지원하는 집에서 사는 학생들은 개별적 단위로 샘플에 포함.

자료: 통계청(1999). 도시가계조사연보
<http://stats.bls.gov/csxover.htm>
<http://stats.bls.gov/hom/homch16.pdf>
<http://www.stat.go.jp/english/>
<http://stats.bls.gov/csxgloss.htm>
<http://jin.jcic.or.jp/stst/ststs>

게 떨어진다.

농·어가의 경우 농가경제조사와 어가경제조사가 따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가계가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임업과 어업을 포함하여) 16.1%가 참여하고 있으며(홍두승 외, 1999) 이들을 제외한 조사결과로 국민생활을 대변한다는 것은 도시가계와 농·어가의 가계경제구조가 같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비비목의 분류가 도시가계조사와 동일하지 않아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지만 농가와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구조를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최현자, 1996)에 따르면 도시와 농가의 소비구조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의 많은 경우가 노인

가구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중이 도시에 비해 더 컸다. 또한 농가는 교제 및 증여비와 관혼상제비를 포함한 기타소비 지출이 도시근로자가계의 2배에 해당하여 전체 소비지출의 약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비중은 도시가계의 약 절반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단독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하고 실시된 우리나라 도시가계조사의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2. 조사방법 및 자료제시

도시가계조사는 표본가계가 매일매일의 가계수입과 지출사항을 기록하는 가계부기장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식으로 인해 조사기간 동안 상당수의 표본이 대체되고 있다. 도시가계조사 일종의 패널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자들이 패널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표본의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기존의 표본과 대체된 표본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연구자가 작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3. 조사내용

도시가계조사자료를 기초로 수행된 앞서의 연구들은 대부분 근로자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이외의 가구에 대한 소득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으로 가계의 소비구조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료가 탈락된 셈이다. 전 가구 중 30% 이상이 근로자 이외의 가구로서 통계청(1993)에서 밝힌대로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우리나라 도시가구 전체의 소득을 나타낼 수 없다. 가계수지와 영업수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영자가구나 경영자가구 또는 자유직업자나 무직가구 등의 근로자와 가구에 대해서는 가계지출 항목만을 조사한다고 하나(통계청, 1993) 가계수지와 영업수지 구분이 불분명하기는 지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수지라는 개념은 소득과 지출간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과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수지와 영업수지의 구분은 수입과 지출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농가의 경우 가계수지와 영업수지 구분이 불분명하기는 도시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조사에서 농가의 소득이 파악되고 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영업수지와 관련된 부분이 농업소득이다.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한 것으로 농업경영비의 조사를 통해 농업소득의 파악이 이루어진다. 도시자영업자의 경우도 농가조사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유직업자와 무직가구의 경우에는 가계수지와 영업수지의 구분이 불분명함이 수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소득의 유입량과 유입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조사의 어려움을 피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가 면접방식이 아닌 일계부기장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V. 도시가계조사의 개선점

우리 나라의 도시가계조사는 ‘도시가계조사’가 아니라 ‘가계조사’가 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으로 단독가구와 농가 및 어가를 포함하고 근로자 이외 가구의 수입도 같이 파악하므로써 명실공히 국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시가계조사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가계조사가 지니고 있는 원래의 목적이 성실히 수행되기 어려우며 또한 가계의 경제행위에 관련된 연구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도시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그리고 어가경제조사를 통합하고 동일한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한 가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8년부터 농가경제조사와 어가경제조사도 통계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현시점에서 가계조사를 통합하는 시도는 적절하

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시도는 도시가계조사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차선택으로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대상에 단독가구를 포함하고 근로자 이외 가구의 수입을 파악하는 정도로 수정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계의 소비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도시가계조사의 문제 중의 하나로 소비자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전망조사와 같은 다른 소비자조사와의 연계도 생각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용상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가계조사자료 이용상의 문제로 방법론적인 문제와 자료제공형태의 문제를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와 개선방안의 도출은 후속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V. 맺는 말

도시가계조사는 국민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사회·경제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많은 연구들의 기초자료가 되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조사연구에서 자주 문제로 제기되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도시가계조사에서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가계조사자료의 유용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가계조사의 표본을 공유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순옥. 1978. "전도시 근로자 가계의 소비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1970년부터 1978년까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8(4): 65-73.
 김영숙. 1996. "도시가계의 경조비 지출구조 분석." 《소비자학연구》 7(2): 1-22.

- 김영숙·심미영. 1994. "도시 근로자 가계의 주생활비 소비지출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2): 1-16.
- 김용준·여정성·하영원. 1999. "소비자학연구지 게재논문 분류와 분석 -창간호(1990)부터 9권 4호(1998)까지-" 《소비자학연구》 10(2): 113-131.
- 김정숙. 1992.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지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36.
- 류재술. 1992. "80년대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구조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특히 80년대 말의 과소비적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2): 59-74.
- 류재술. 1992. "적응적 기대(AE)모형에 의한 도시근로자가구의 장·단기 소비함수 추정 -봉급자 가구와 노무자 가구의 비교연구 1970-1990." 《소비자학연구》 3(1): 80-95.
- 박광희·배미경. 1997. "지위일치·불일치 유형에 따른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4): 1-14.
- 박명숙. 1998. "도시가계의 경조비 지출 변화추이와 관련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13-24.
- 박명희·이승신·배미경. 1998. "가계 재무관리 Software 개발을 위한 연구 (II)." 《대한가정학회지》 36(2): 131-144.
- 박선미·김영숙. 1992. "한국 경제개발계획 연도별 가계소비지출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4-18.
- 배미경·박광희. 1997. "도시가계의 피복비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415-428.
- 배미경·박선영·이승신. 1997. "가계 비상금 소유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213-224.
- 배미경. 1998.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함수 분석." 《소비자학연구》 9(4): 83-100.
- 배연수. 1990. "가계분석에 있어서 Engel curvedml 함수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87-101.
- 성영애·양세정. 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

- 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 송인숙. 1999. “소비자학 연구,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6차 학술대회 논문집.
- 양세정. 1998.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169-186.
- 양세정 · 이윤금. 1997.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자녀수와 자녀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81-101.
- 양세정 · 강미나. 1995. “자산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6(1): 57-67.
- 양세정. 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2): 17-28.
- 윤정혜 · 성영애. 1998. “한 · 일 · 미 가계의 소비구조 비교를 통한 한국 가계의 소비표준 설정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55-167.
- 이윤금. 1998. “도시가계의 가정의례비 지출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9): 35-47.
- 이희숙. 2000. “도시근로자 가계의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 1985-1998.” 《소비자학연구》 11(3): 15-39.
- 정용선. 1993. “소득향상과 식료품비의 변화 -도시 근로자 가계를 중심으로 (1975-1990).” 《소비자학연구》 4(1): 59-73.
- 주인숙. 1997. “가계의 소비지출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277-290.
- 최은숙. 1990. “우리나라 소비지출 유형의 변화 -소비지출함수의 추정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1): 127-158.
- 최현자. 2000.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67-184.
- 최현자. 1996.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가계수지와 저축 및 차용행태의 변화.”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2: 187-207.
- 홍두승. 2000. 《사회조사분석》 (제3판). 다산출판사.
- 홍두승 · 김병조 · 조동기. 1999. 《한국의 직업구조》. 서울대출판부.
- 통계청. 1999.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1993. 《도시가계조사 30년》

<http://jin.jcic.or.jp/stst/ststs>

<http://stats.bls.gov/csxover.htm>

<http://stats.bls.gov/csxgloss.htm>

<http://stats.bls.gov/hom/homch16.pdf>

<http://www.stat.go.jp/english/>